나이팅게일 기장을 받고

〈경북의대부속병원 간호과장〉 권 석 혜

10年前에 數次採勝한 古蹟의 第一觀光地인 新羅의 古都 慶州를 찾아서 떠났다. 貸切한 마이크로빠스 안에서 재미난 장난 흘러간 옛노래 경연등으로 과장, 의사, 간호원, 보조원 모두가 童心으로 돌아가 오래간만에 즐거운 時間을 가졌다. 사실은 나이가 들어 늙어가니 젊은 축에 섞이어 놀고 싶어도 피차에 어려울것 같아서 늘 못간다는 핑계를 해왔지만 이날은 마침 老敎授님이 같이 가시게 되어 쾌히 승낙했다.

하루 종일을 산에서 들에서 떠지 않고 古蹟을 求景하고 歸路에는 노래소리에 묻쳐서 밤 11시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둘째 아들놈이 "어머니 모릅니까" "뭐가 말이냐" "방에 가서 보이소" 하기에 방에 들어와보니 册床 위에 電報 몇장과 분홍색종이에 쓴 글자가 눈에 띄였다. 제일 먼저 본 것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보내온 「축 나이팅겔 기장수여결정」이라는 것이었고, 고외에는 큰 오빠, 아들, 친지, 친척들의 것이었다.

정말 기뻤다. 하루종일 밝은 기분으로 유쾌하게 잘 놀고 돌아왔는데 이 무슨 기쁜 소식이냐! 무엇보다 다행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추천한 것이 당선되었으니 더욱 고마웠다.

大邱各日刊新聞에는 各가지 형태를 달리한 記事와 사진이 났다. 그다음날 경북도 의사회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축하人事를 未安할 程度로 받았다. 뒤어어 各新聞社, 放送局, 雜誌社에서 每日같이 찾아와 흥분과 操心 속에서 나날을 지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했다. 每日같이 祝賀과 격려의 편지를 받고 10年前 20年前 정다운 벗들의 소식도 받았다. 사실 수상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받는 것이라면 몰라도 벌써 6회나 받았고 요지음 와서는 상도 하도 많으니 世界的으로 단 한사람이 받는 노벨상이나 되면 몰라도 나로써는 賞에 對한 價値觀이 너무도 미약했다.

그동안 賞도 여러차례 받았다. 국가원수상, 대한간호협회상, 대한조산협회상 그 외 기관장, 동창회에서 여러가지모양의 상을 받았다. 그러고 보니 상받은 자랑을 하는 것같기도 하지만 사실 상받는 본인의 기분은 오히려 감사하다는 것보다 미안한 생각이 앞서게 된다.

왜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使命을 행하는 것이고 내게 맡겨진 責任과 任務를 한것 뿐인데 정말 송구스럽기 한이 없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번에 나를 추천해 주신 大韓醫協 慶北支部, 大韓醫協, 大韓赤十字社, 여러분들께 먼저 이 紙面을 通해 感謝 드리고 싶다.

지난 1968년 12月 어느 날 경북도의사협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내용은 나이팅겔기장 수여자로 우리 경북의사회에서 추천했으니 이력서와 공적서를 속히 내달라는 것이다. 나는 극구반대했다. 간호협회에도 추천하지 않았는데 될 말이냐고 수차 거절했으나 간호원 아닌 단체가 추천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는 새로운 理由를 걸고 每日같이 독촉을 하기에 너무 거절하는 것도 失禮가 될 것 같아서 이력서를 냈던 것이다.

10月 27日 막상 受賞壇上에 앉아 있는 그 순간 벅찬 감격과 감회에 가슴이 메이고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몇번이나 느끼면서 억지로 감정을 누르느라 애썼다. 내가 걸어온 30餘年間 看護事業을 通한 갖가지 일들이 영화의 필림처럼 내머리를 스쳐갔다. 女子이기 때문에 걸어야 할 길, 어머니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더욱 이 事

業을 하는데 暗焦가 되었던 일들…….

나는 이 壇上에서 느꼈던 몇가지를 쓰고 싶다.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은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금 옛이야기하듯 정다워졌으면 좋겠고, 다소나마 우리들이 하는 일에 참고가 되었으면 만족하겠다. 내가 看護員이 된 후부터 (1934年졸업) 이 나라의 歷史의 變遷, 文化의 變遷, 看護事業의 發展, 나는 이 흐름 속에서 크나큰 事實들과 울고 웃어가면서 살았다. 어느덧 紅顔에 주름이 잡히고 머리에 흰털이 하나 둘 생겨 生의 年輪을 말하는듯 하다. 世界二次大戰이라면 아마 모두들 잘 記憶하리라 생각한다. 그때 나는 東山病院에서 일할 때다. 外國人선교사들은 다 歸國해버렸고 日本人院長과 庶務課長이 들어왔다. 우리 한국사람은 姓을 갈고, 말도 日本語만 常用하라고 했다. 그때 우리 간호원들 유니폼은 검정 廢木에다 흰 깃을 달았다. 지금도 동산병원 졸업사진을 보면 검은 유니폼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수시로 방공연습을 한다고 국방색 바지를 전직원이 입고 폭격시 환자운반과 방공호 대피하는 연습을 했다. 戰時라고 해서 응급처치법을 80연대(일본군인)에 가서 배웠다. 간호원양성소 학생에게는 일본語로만 강의를 하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저절로 우슴이 나온다. 일본語가 서투른줄에 기초간호학을 일본말로 고쳐서 강의를 했으니 호랑이 담배먹는 얘기같다. 그러나 기초간호학만은 잘 가르쳤다. 그러다가 8·15解放이 되어 나는 1946년, 해방 다음해 대구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도립병원)간호부양성소의 굳게 잠겨 있는 門을 내 손으로 열고 들어가, 그들이 남기고간 책상과 사무용 도구를 다시 손질하면서 내나라 내살림이라는 감격과 의욕과 열성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말로 대한민국 간호원을 교육시킨다고 생각만해도 기뻤다. 그때의 병원복도 양가에는 일본말로 불리우는 "쓰끼소이(付添人)"들이 늘어서 있고(이들은 대개 미망인아니면 불우한 20~30歲 가량의 女性으로 환자의 용변시와 식사를 돕고, 체온측정을 함) 또 다른 한가지는 요지음 불리우는 간호보조원(미나라이)들이 15~18까지의 소녀로써 대개가 일본집아이보기, 여차장 등속으로 30餘名 患者看護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참 기막힌 현상이었다. 간호원 근무는 숙직制로 병실과 의대 간호원중 각병동마다 두사람씩 하는데 이들은 간호원실 곁에 다다미 방에서 자다가 부첨인이 밤중에 환자가 이상이 있어서 간호원을 깨워서 보고하면 간호원은 숙직의사 지시대로 주사나 투약을 한다. 간호원 배치는 서무과에서 했고, 모든 物品은 用度係에서 받았다.

처음 두달동안은 간호학생정리, 付添人廢止, 간호원근무 交代실시를 무사히 마쳤다. 이때 지금은 作故하셨지마는 高秉幹學長님이 잘 協力해 주셨다. 다음 또 큰 사고발생은 "코레라"발생이다. 그때 사망한 환자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병원 간호원은 대구시민의 간호원으로 불철주야 일했다. 금년에 발생한 코레라는 얼마나 쉽게 처리되었나. 오염지구차단, 예방접종, TV로 신문으로 얼마나 빠르게 계몽시켰는가. 그만큼 발전되었으니 다행한 일이다.

또 1947년 10월 1일의 左右翼 思想衝突, 殺傷과 빼앗음의 亂場판, 本大學病院 마당이 피로 물드려졌던날, 精誠어린 手術로 病室에 옮겨진 患者를 사정없이 짐승 끌듯 끌고 마당으로 나가던 그 악착한 모습, 수많은 경찰관들의 떼죽음, 씨레기역듯 막 엮어서 추럭으로 실어 병실에 놉힌 모양과 윗과의사와 간호원들이 말없이 침착하게 정성드려 불철주야로 일하는 그 열띤 活動이 다시금 기억에 새롭다. 영문도 모르고 左왕右왕하다가 경찰에 가서 고생한 의사, 간호원, 그 혼란, 그러나 이 반면에 병실관리는 完全히 看護課가 掌握하고, 中央部도 간호과에서 新設管理하게 되어 빠른 時日에 現代化하게 되었다.

1952년 6.25動亂으로 因한 第2國民兵, 그들을 收容한 病院이 東都市立病院(東都國民學校)이라고 臨時病院으로 썼다. 직원은 醫大부속간호학생과, 피난민醫師, 피난민 看護員, 피난민 藥劑師, 患者도 職員도 모두가 피난民이었다. 불쌍한 大韓男兒 病들고 굶주리고 헐벗은 환자 하루에 100~200명씩 추럭에 실어 와서 병실이래야 교실 마루방에 가마니와 담요를 깔고 그 위에 홑이불을 펴서 눕혔다. 그래도 병원까지 온 자는

행운이랄까, 오다가 죽고, 와서는 너무 지쳐서 죽은 수 많은 망령들. 간호원은 또다시 바지(몸빼)를 몇달 입었다.

이런 중에도 간호학교 학생이 있으니 교육을 해야 했다. 피란민醫師들 중에 훌륭한 분이 많아서 선생구하기는 쉬웠다. 그러나 기초간호학을 할려니 시설도 기구도 없다. 할 수 없어 운동장에 작은 天幕을 치고 침대 한臺, 학생책상(Bed Side Table)의자 한대를 날라두고 그다음 기구라고는 전부가 代用品이다. 그들에게 정신만이라도 넣어주고 싶었다. 그때 나와 苦樂을 같이 한 學生들 정말 臨床實習을 그만큼 많이 한 학생은 前無後無하리라고 생각한다. 그 때 쓸업한 학생으로 지금도 看護敎育에 훌륭하게 일하고 있는 분을 소개하면, 서울大學保健大學院에 李景淐先生, 慶大看護學校에 吳福得先生, 李二相先生이다. 그 外에도 그때 같이 수고한 同志들을 누구보담도 마음속에 삭여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단상에 앉은 순간 되살려지며 이 모—든 액운과 역경 속에 살면서도 굴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고 오로지 사명감에서 간절한 기도로 이기고 살아온 것이 오늘인가싶어 어쩐지 가슴이 뭉클해짐을 몇번이고 느꼈다.

너무나 지나친 찬사와 정성어린 귀한 선물들을 주신 분들께 앞앞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마땅하나 이 지면을 통해 인사에 대함을 널리 양해해 주기를 바라며,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일하면서도 大過없이 지나게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는다. 내가 책임진 분야에서 일할 때 그 기관 전체가 찬성하지는 않는다. 때때로 멸시와 불쾌감이 느껴졌지만 인내와 투지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왔다. 요지음 간호원들 가운데는 조그만한 충돌이 있던지 불쾌한 일이 생기면 "과장님 그만 두겠읍니다"하고 말한다. 그만두는 조건이 얼마나 가소로우냐.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하는지 간호정신은 아주 망각한 행동이라고 본다. 간호정신이 박애, 봉사, 희생이라면 이세가지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만 이러한 난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事業發展을 爲하여 투쟁과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는 있는 힘과 지혜와 성의를 다해 우리나라의 看護事業이 世界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도록 서로 힘을 合해야 될 줄 안다.

己酉年 11월 24일

●……10년만에 돌른 장 한숙씨……●

지난 11월 6일 남 몰래 살짝 고국땅을 딛이려던 장한숙(적십자 간호학교)씨가 교사부족으로 동분서주하던 홍영숙씨에게 덜컥! 그만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하긴 6개월간 휴직을 하고 방문차 돌아온 장한숙씨에겐 좀 따분한 멍에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간호교육에 그만큼 인재가 아쉽다는 그 실정을 깊이깊이 명심하시기를….

1952년에 적십자 간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장한숙씨는 1960년 정월 미국 Philadelphia로 건너가 안과간호 P.G. course를 마치고 영국, 카나다를 거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현재 B.S course를 하는 중이나 내년이면 끝난다고 말끝마다 노학생(?) 소리를 연발한다.

R.N.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간호교육을 철저히 받기 위해 freshman으로 들어갔다면 과연 어느 정도나 철저하고 착실한 성품인가 가히 짐작이 갈만 하다.

〈장 한숙〉

특히 이번에 경희간호학교에서 개최된 간호학 심포지움에 참석하고 나서 "내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간호교육자들의 열의가 보통이 아니더군요" 하면서 감탄.

미국에도 역시 간호교육기관중 3년제 간호학교가 제일 많지만 차차 초급대학 과정으로 바뀌어가는 경향이 짙어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간호교육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도자와 순수한 실습장으로서의 병원이 마련되어야 이상적인 간호교육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한마디를 한다.